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1항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요)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4월의 주제 <기억해0	경기북부지부	마성공권작은도서관	김은미	4월의 소년	풀빛	박지숙	1960년 4월19일, 대한민국 거리 곳곳을 뜨겁게 달군 시민들의 한목소리! 과연 그때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거리로 달려 나갔을까요?
4월의 주제 <기억해0	서울동부지부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북	김여숙	바람이 되어 살아날게	다른	유가영	살아남은 많은 유가영이 평안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4월의 주제 <기억해0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김경숙	세월	노란상상	문은아	[나는 세월호다. 목적지에 닿지 못한 여객선. 놓쳐 버린 승객들을 기다리는 여객선] 새로운 시점으로 그 날을 기록했다. 가슴아픈 기억이 떠오르며, 기억을 다정한다.
4월의 주제 <기억해0	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국향미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한강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어요.
4월의 주제 <기억해0	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이순미	이렇게 당신에게 가고 있어	필우림	신혜진	벗꽃잎 날리며 내가 당신에게로 가고 있음을 알립니다. 벗꽃잎 날리는 아름다운 날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4월의 주제 <기억해0	충청지부	초롱이네도서관	박춘성	세월	노란상상	문은아	세월호 참사를 배의 입장에서 기록하였다. 자신이 증거라며
4월의 주제 <기억해0	충청지부	푸른작은도서관	김하루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한강	p.134 무엇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 가슴에 활활 일어나는 불이 없다면. 기어이 돌아가 깨안을 내가 없다면.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개인회원	사무국	김진희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	다다서재	가와우치 아리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이 함께 작품을 보는 행위의 목적은 작품의 이미지를 서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이란 생생하게 살아 있는 말을 실마리로 삼으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해하는 것, 모르는 것, 그 전부를 한데 아우르는 '대화'라는 여정을 공유하는 것이다.(p. 140)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개인회원	사무국	신현미	사람을 위한 경제학	반비	살비아 네이사	"오스틴이 세상을 떠나고 불과 30년 만에, 그 세계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했다. "부와 사치와 세련된 취향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개선될 수 없다고 여겨지던 하층의 조건이 유래없이 개선되었다. ...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생각, 그리고 환경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도 불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 인간이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급진적인 발견 중의 하나였다. ... 1870년 이전에 경제학이 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느냐에 대한 학문이었다면, 1870년 이후에 경제학은 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학문이 되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개인회원	아름동림지기10단지 도서	신현숙	1913세기의 여름	문학동네	플로리안 일리스	100년전 유럽으로의 시간여행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경상지부	진주여성회 부설 달팽이여	전옥희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정희진	여러가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책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대구지부	해봄작은도서관	이수미	동화로 읽는 가시고기	파랑새 어린이	조인찬	동화로 읽는 가시고기 /조장인 원작/출판사 파랑새 어린이 가시고기는 이상한 울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을 낳은 후엔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아이들아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보죠. 아이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울고기들과 욕속을 걸고 싸웁니다.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알들을 보호해요. 알들이 깨어나고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끼 가시고기들은 아빠 가시고기를 버리고 제갈길로 가버리죠. 새끼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홀로 남은 아빠가 가시고기는 돌봄에 머리를 치받고 죽어 버려요. ~ 쿨츠? 가시고기의 주제는 부성애일까요?모성애일까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서울동부지부	작은도서관 웃는책	김지영	문학처방	느린서재	박연옥	[일기를 읽으며 황정은도 나처럼 후회하고 자책하며 계속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황정은의 책을 좋아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아마도 그의 문장에 찢려 피를 흘리면서도 부끄러워하며 계속 읽어나가는 일일 것이다. 불편한 독서는 무더지려는 마음에 파란을 일으킨다(118페이지)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양정작은도서관달팽이	하현숙	치매의 모든것	심심	취프 바위선	치매환자를 만나면 당황하는것, 그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짐작을 두려워하는 불안을 덜 수 있다면 좋겠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울산경주지부	하령작은도서관(울산)	배수경	슬픔이여 안녕	아르테 arte	프랑수아즈 사강	잘가라 슬픔이여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충청지부	고운힐스작은도서관	김정화	숫품으로 성공하는마케팅원	제이펍	아카시 가쿠토	탁톡,랄스,숫츠 한변폼은 들어봤을꺼다. 1분미만의 이 짧은영상으로 역대연봉도 가능한 세상이라니. .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SNS시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알고 배워야할 영역이 분명하다.